

한국판 뉴딜펀드

이제 본격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_____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한국판 뉴딜펀드

이제 본격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국민과 투자성과 공유를
위해 준비해 온
“뉴딜펀드”가
이제 시작됩니다.



2020

- 7월 14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9월 3일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한국판 뉴딜 성공 및 국민 성과 공유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 12월 2일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 필요한
'21년도 정부 예산 5,100억 원 국회 확정
- 12월 4일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 확정
- 12월 23일 •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발표
- 12월 29일 • 정책형 뉴딜펀드 출자사업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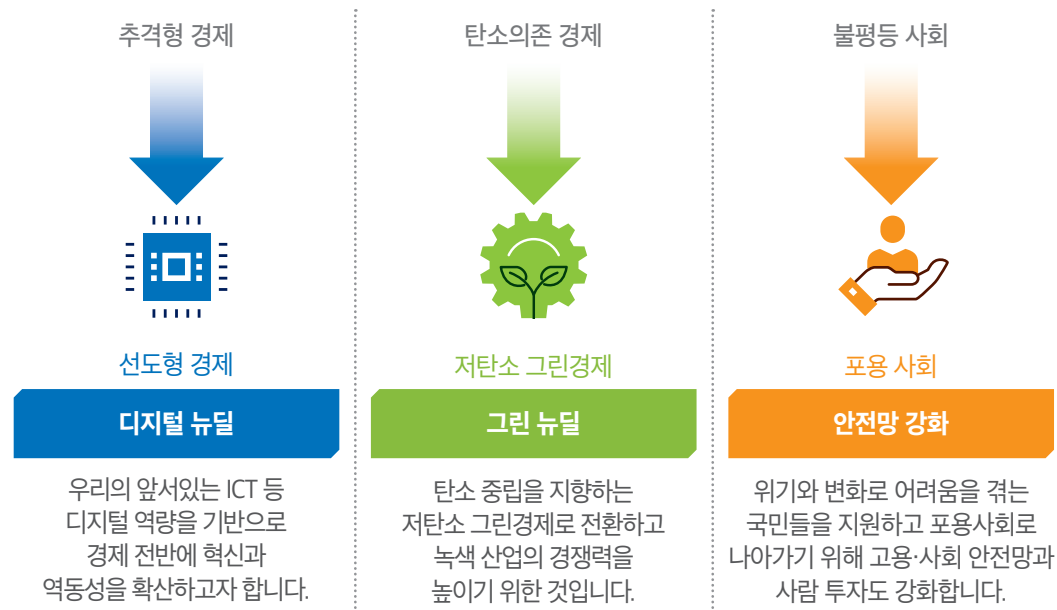
2021

- 2월 26일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정시) 선정
- 3월 29일 •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

PART 1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는 담대한 전환, 한국판 뉴딜	01
PART 2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03
PART 3	뉴딜펀드 추진현황	05
	1 뉴딜펀드 ❶: 정책형 뉴딜펀드	
	2 뉴딜펀드 ❷: 뉴딜 인프라펀드	
	3 뉴딜펀드 ❸: 민간 뉴딜펀드	
PART 4	향후 주요 일정	14
PART 5	뉴딜펀드 10문 10답	15
별첨	1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	19
	2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정시)	23
	3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투자사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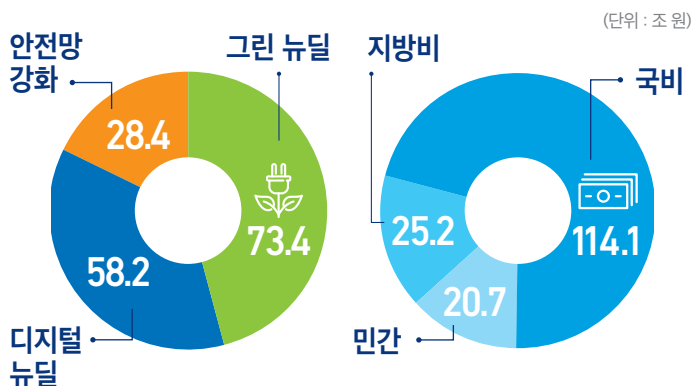
-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는 담대한 국가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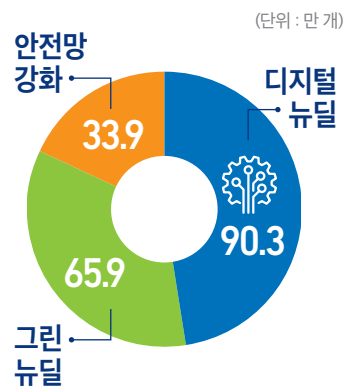


- ◆ **투자 계획 및 일자리 창출효과**(2025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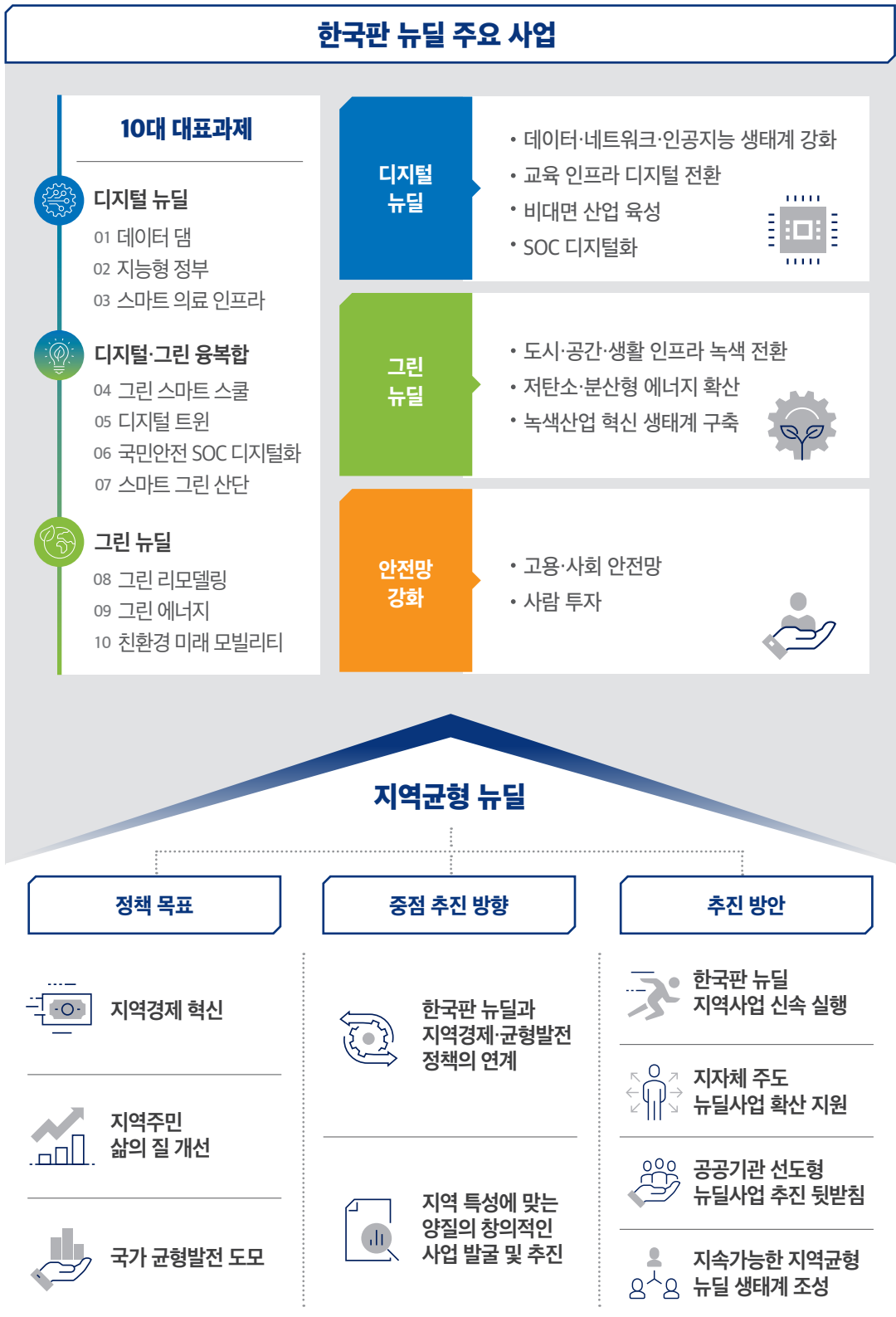
투자 계획 | 총 160.0조 원 투자



일자리 | 총 190.1만 개 창출



◆ 한국판 뉴딜의 구조



- 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②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
③ 국민들과 성과공유를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등 추진

➡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뉴딜펀드 추진체계

기본 방향	1	정책형 뉴딜펀드 + 뉴딜 인프라펀드 + 민간 인프라펀드 ➡ 3가지 축	
	2	민·관의 역할 분담	3
세부 추진 방향	정부	재정 통한 위험 부담, 세제지원,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등 공모 활성화
	민간	자율적 상품 개발	민간의 자율적 펀드 조성 유도 퇴직연금 연계 확대
세부 구조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 정부 등 출자 + 민간 자금 매칭		•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방식 + 민간 인프라펀드
	• 재정을 통한 후순위 출자 * 투자 위험 부담		• 세제지원 • 프로젝트 발굴
	•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기업 *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뉴딜투자 공동기준)		• 뉴딜 인프라시설
조성 방안	•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에 참여		• 공모방식 확산 * 공모인프라펀드에 한해 세제혜택 부여
	• 「국민참여펀드」 조성		•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 * 민간에서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 자율 설계
유인 체계	•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에 참여		• 민간에서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 자율 설계
	• 「국민참여펀드」 조성		•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 * 민간에서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 자율 설계
투자 대상	•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기업 *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뉴딜투자 공동기준)		• 뉴딜 인프라시설
	•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에 참여		• 공모방식 확산 * 공모인프라펀드에 한해 세제혜택 부여
성과 공유	• 「국민참여펀드」 조성		•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 * 민간에서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 자율 설계
	•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에 참여		• 민간에서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 자율 설계

정책형 뉴딜펀드

1

'21년~'25년간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7조 원 조성



민간매칭(13조 원)으로
20조 원 규모 자펀드 결성
(연간 4조 원 규모)

사모재간접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투자기회 제공

뉴딜 인프라펀드

2

세제지원(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정책형 펀드를 통한 위험부담,
양질의 사업발굴 등을 통해 국민들
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3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자체 펀드 결성 활성화를 통해
시장내 뉴딜펀드 붐업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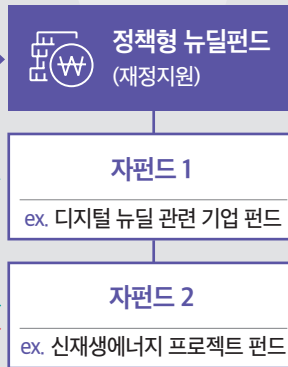
뉴딜펀드 개념도

출자 —————> 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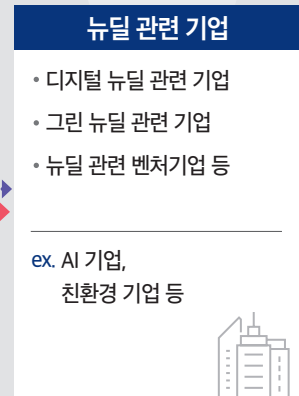
투자자



뉴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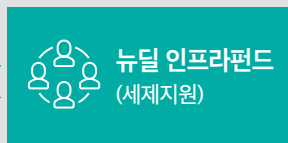
투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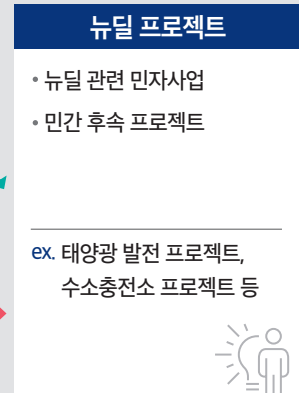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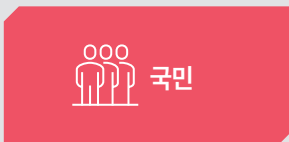
뉴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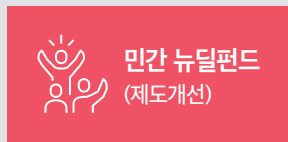
투자 대상



투자자



뉴딜펀드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 등 최대 4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

1 정책형 뉴딜펀드



01 | 주요경과

- ◆ 정책형 뉴딜펀드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기업,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 추진

- 1 '21년중 펀드조성에 참여할 정부 예산 5,100억 원 확정('20.12.2)
- 2 산업계·금융계 의견을 수렴하여 펀드 투자대상 선별·자산운용 등에 활용하기 위한 '뉴딜투자 공동기준'을 확정('20.12.4)
*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200개 품목 확정
- 3 뉴딜펀드에 대한 사업자,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뉴딜 분야별 관계부처 투자설명회 총7회 개최('20.11~'21.3)



민간투자자들이 산업계·운용사 등과 활발히 소통, 설명회 영상을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

뉴딜 분야별 관계부처 투자설명회(총7회) 진행 경과

1 Data-AI-5G (과기부·금융위) '20.11.6	2 미래차·신재생에너지 (산업부·금융위) '20.11.19	3 친환경차·녹색산업 (환경부·금융위) '20.11.26	4 스마트팜 (농림부·금융위) '20.12.10	5 친환경선박 (해수부·금융위) '21.2.2	6 지역균형뉴딜 (행안부·금융위) '21.2.8	7 스마트시티·스마트물류 (국토부·금융위) '21.3.4
--	---	--	---	--	---	--

- ◆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투자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금융계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 체결('21.2.4) * '21년중 2,000억 원 규모의 미래차·산업디지털 투자펀드 결성 등

- ◆ [운용사 선정] '21년 조성 목표금액인 최대 4조 원 중 3조 원에 대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21.2.26) * 3조 원 중 프로젝트펀드 0.4조 원은 별도 수시모집 진행(1개 운용사 선정 완료) 중

- 1 위탁운용사 모집 접수 결과 총 9.7조 원(84개사)의 제안이 접수되어 3.2 대 1의 경쟁률 기록
⇒ 시장의 관심도 매우 높음

② 운용사 선정결과,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40개 뉴딜분야가 모두 선정

• 디지털뉴딜



77%

• 그린뉴딜



23%

정책형 뉴딜펀드 '21년 정시(3조 원) 위탁운용사 선정결과

구분	기업투자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펀드	계
	투자제한형	뉴딜성장형	국민참여형			
정책출자규모	3,850억	2,700억	600억	1,250억	1,600억	10,000억
펀드조성규모	11,000억	9,000억	2,000억	4,000억	4,000억	30,000억
지원 운용사	42개	11개	17개	14개	접수 중	84개
선정 운용사	11개	3개	9개	3개	접수 중	26개

- ◆ [1호 투자]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자펀드*(420억 원)를 결성하여 뉴딜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1호 투자집행('21.2.26) * 프로젝트 펀드(정책자금 220억 원 + 민간자금 200억 원)

**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40개 분야 중 디지털뉴딜의 '스마트 헬스케어' 영위

- 금융위원장, 1호 투자기업 방문 및 산업계·금융계 간담회 개최('21.3.11)

- ◆ [국민참여] 한국판 뉴딜펀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21.3.29)

- ① 펀드구조 소부장펀드와 유사하게 일반국민 참여*(1,400억 원) 및 재정(600억 원)으로 2,000억 원 조성
⇒ 자펀드 10개에 분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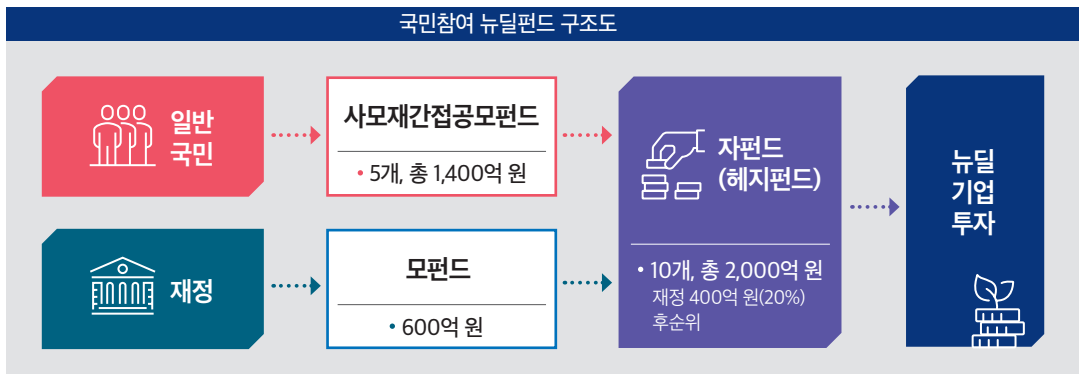
* 일반국민에게 15개 은행·증권사에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상품 판매

- ② 위험부담 정부재정 600억 원 중 400억 원을 후순위로 투자하여 펀드자산 20%에 대해 위험분담

- ③ 펀드운용 자펀드 운용사 9개사가 총 10개, 평균 200억 원 규모 자펀드를 운용하여 상장기업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

- ④ 국민판매 '21.3.29일부터 4.16일까지 3주간 일반국민 대상으로 판매

국민참여 뉴딜펀드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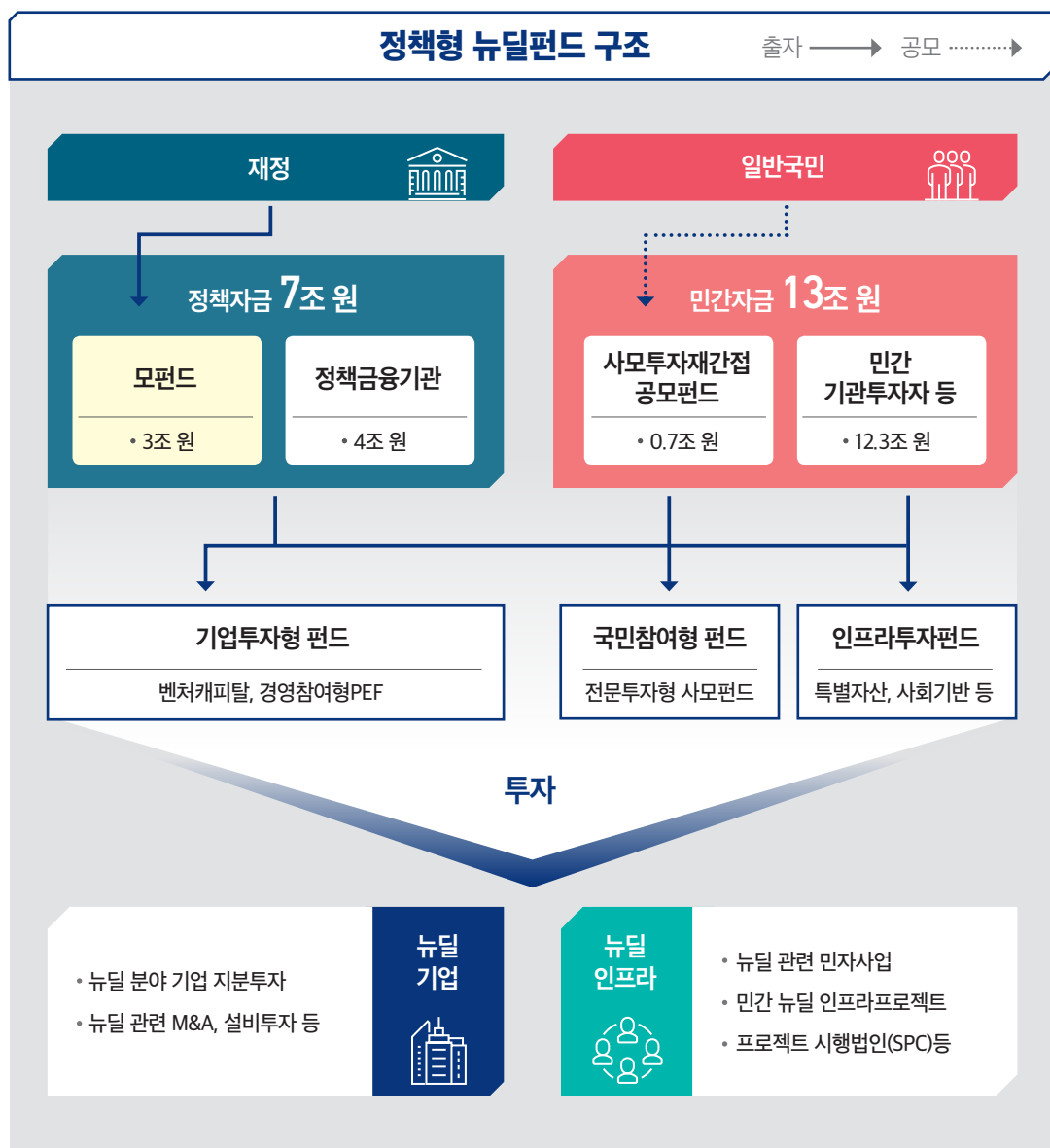


02 | 펀드 구조 및 투자 대상

- ◆ [펀드 구조] 5년간 20조 원을 조성하며, '21년도에는 민간투자자금 매칭을 통해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 추진

- ① 재정·정책자금은 펀드재원의 약 33% 수준으로 재정 출자분(5,100억 원), 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
- ② 민간투자자금중 일부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를 조성하여 마련

*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조성액 : 민간투자자금의 약 5% 내외('21년 → 1,400억 원 목표)



◆ [투자 대상] 이미 운용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선정하고, 200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

- 투자대상(기업, 프로젝트 등)이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 유도



• **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영위 기업
(도소매, 단순운송 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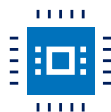


• **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 관련 핵심 기술·
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범용성 부품 제외)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분야

디지털 뉴딜 30개

- 로봇
- 항공·우주
- 에너지효율향상
- 스마트팜
- 친환경소비재
- 차세대 진단
- 첨단영상진단
- 맞춤형의료
- 스마트헬스케어
- 첨단외과수술
- 차세대무선통신미디어
- 능동형컴퓨팅
- 실감형콘텐츠
- 가용성강화
- 지능형데이터분석
- 소프트웨어
- 차세대반도체
- 감성형 인터페이스
- 웨어러블디바이스
- 차세대 컴퓨팅
- 감각센서
- 객체탐지
- 광대역측정
- 게임
- 영화/방송/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 창작·공연·전시
- 광고
- 디자인
- 고부가서비스
- 핀테크



그린 뉴딜 17개

- 신제조공정
- 로봇
- 차세대동력장치
- 바이오소재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발전
- 에너지저장
- 에너지효율향상
- 스마트팜
- 환경개선
- 환경보호
- 친환경소비재
- 차세대치료
- 실감형콘텐츠
- 차세대반도체
- 능동형조명
- 객체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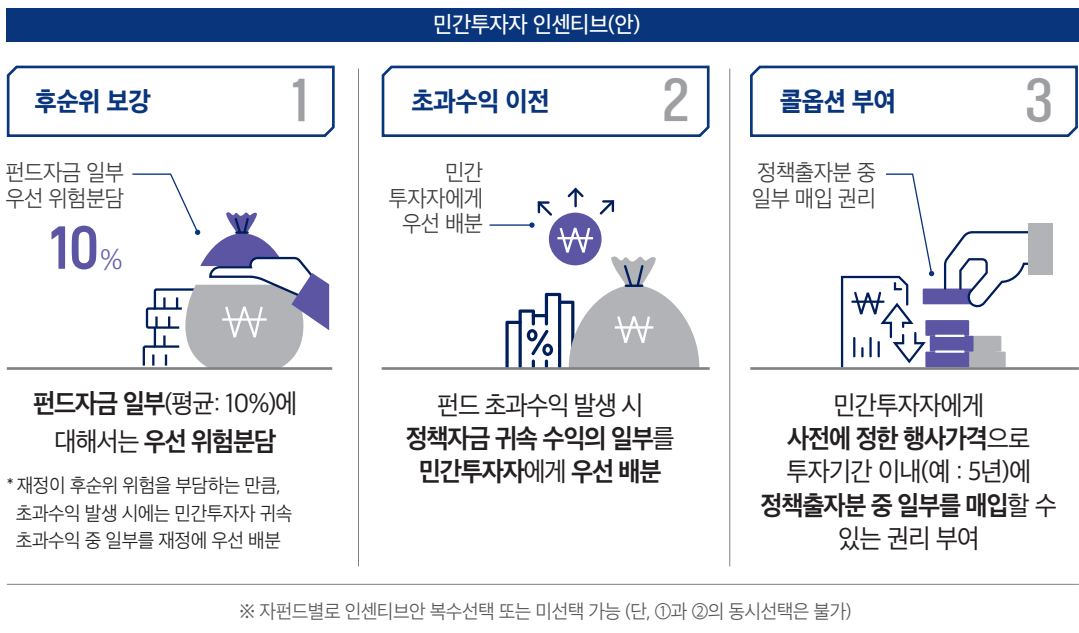
* 중복(밀줄) 7개 제외 시 40개 분야

03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 ◆ [장기투자] 산업 성숙도가 낮고 자금회수기간이 긴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여타 정책형 펀드*보다 운용기간 장기화를 허용 *정책펀드의 운용기간은 통상 7~8년 내외로 설정

- ① 펀드 운용기간은 10년까지 허용
- ② 투자분야·투자전략 등을 감안하여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인프라 펀드)까지 설정 가능

- ◆ [인센티브] 민간투자자의 정책형 뉴딜펀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펀드 손익 배분 시 선택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



- 운용사에게는 뉴딜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별로 뉴딜분야 투자실적 비율이 높을수록 인센티브 부여

- ◆ 투자 위험도가 높아 민간자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부담이 큰 뉴딜분야 투자를 제안·시도하는 펀드 운용사 우대

- ①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출자비용 상향조정
- ② 리스크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hurdle rate)을 하향조정
- ③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심사 시, 뉴딜정책과의 정합성, 투자제안·운용전략의 혁신성 등이 우수할 경우 우대




2 뉴딜 인프라펀드



01 | 주요 경과

- ◆ [세법개정]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20.12.29) 후 **시행령**(‘21.2.17) 및 **시행규칙**(‘21.3.16) 개정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세율	한도	투자비율
 9% 거주자의 9% 배당소득 분리과세	 2억 원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50% 이상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인프라 심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기재부령), 뉴딜인프라심의제 운영세칙(기재부 고시) 신설 완료(‘21.3.31)

* 개별 신청 건에 대해 분과별 전문가회의의 사전검토 결과, 자문기구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02 | 세제지원 방안

01 | 펀드유형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부동산펀드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02 | 펀드 투자대상

- ① 뉴딜 + ②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시설 관련 자산

① 뉴딜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 200개 품목	+	② 인프라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2.1.)
------	----------------------------	---	-------	------------------------

03 | 인별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04 | 세제혜택

거주자의 배당소득 저율(9%) 분리과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보다
5%p 낮은 세율 적용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非합산(종합소득세율 非적용)

05 | 의무투자비율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뉴딜 인프라에 투자

06 | 일몰기한

'22.12.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몰연장 등 추진

03 | 심의 운영 방안

가. 심의 신청

01 | 신청자

펀드를 설립·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

02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혁신성장지원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의 신청대상 시설 설명서 및 투자계획서 등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www.knewdeal.go.kr에 안내 메뉴 신설*

* 심의 신청 관련 기본정보, 신청서식, 신청 접수처 안내 등

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

01 | 기능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심의(수시 개최)



디지털(과기부)·그린(산업·환경부) 분야별 전문가회의 사전검토 결과,
자문기구(산업은행·KDI) 의견 등을 기초로 심의·의결(다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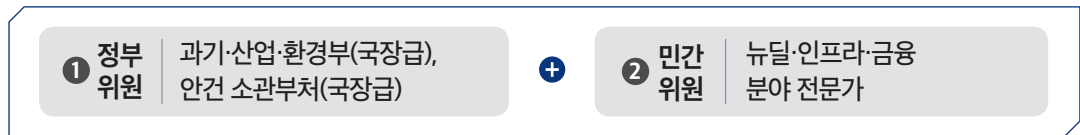
02 | 기준

① 뉴딜 및 ② 인프라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



03 | 구성

위원장(기재부 차관보) 포함 15명 이내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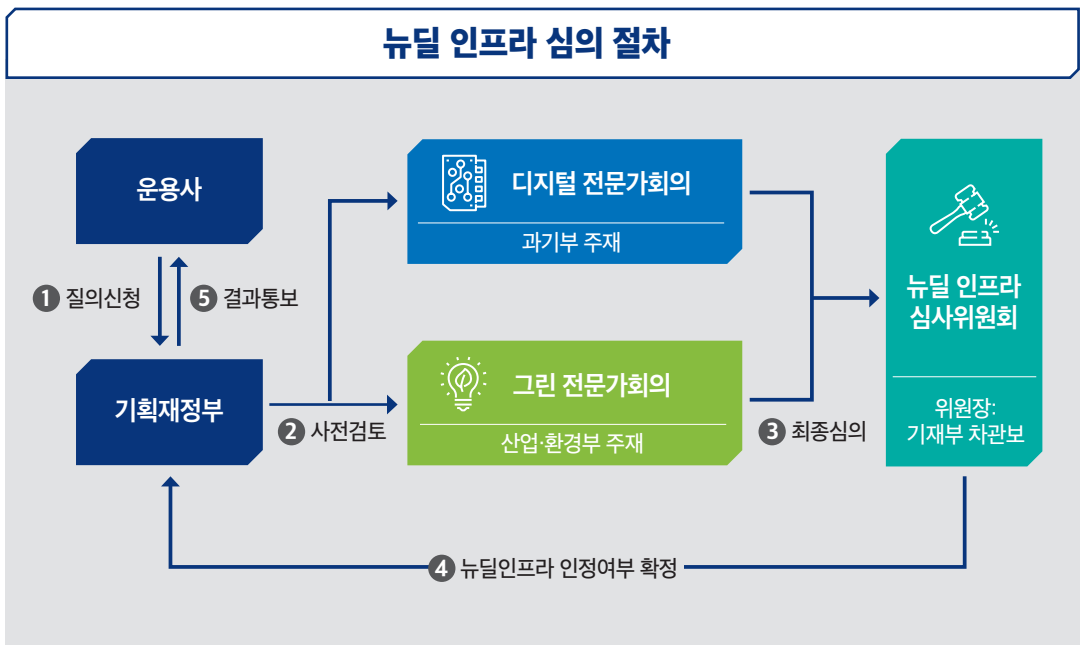
다.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01 |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신청자에게 통보

02 |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회) 가능



3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장 내 뉴딜펀드 붐업 여건 조성

- ◆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

- ◆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 조성

- 1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하여 뉴딜 사업 투자 관련 구체적인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예)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지역 민원 제기

→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 추진

- 2 RE100¹⁾·ESG 투자 활성화²⁾,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개선 등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

(예)



1)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제3자 PPA 등) 허용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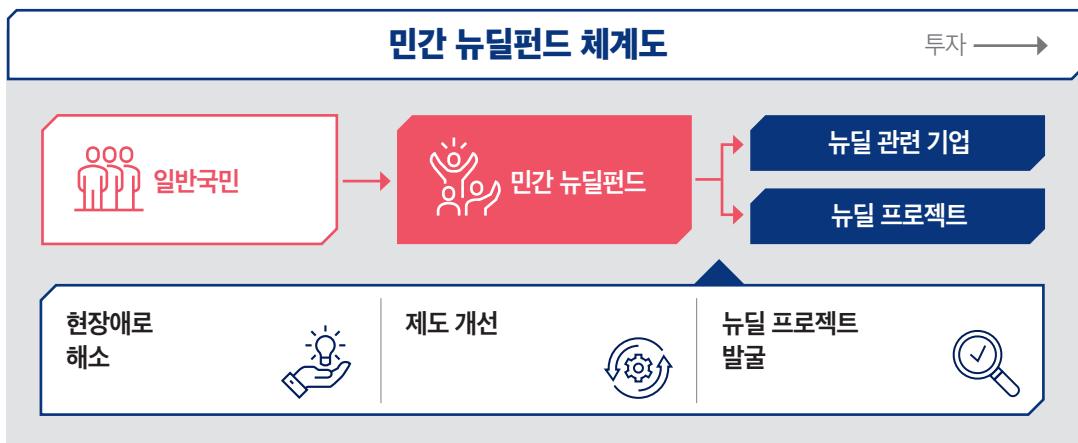
2)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투자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 [1.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2.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

-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한국거래소)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

- ◆ 국민은 시장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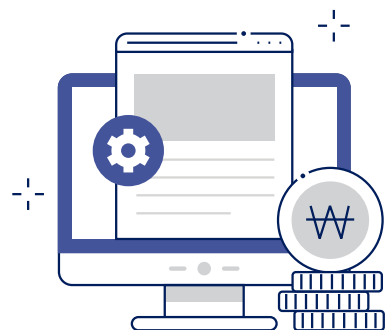
1 정책형 뉴딜펀드



◆ 금년 중 최대 4조 원* 규모 자펀드 결성 추진

* 3조 원 규모의 위탁운용사 선정절차는 2.26일 완료

- 4월 ● 1조 원 규모 자펀드 위탁운용사 모집공고 (산은·성장금융)
- 투자자-운용사-투자기업 간 정보허브 구축* (산은·성장금융)
* 정책형 뉴딜펀드 홈페이지를 구축해 투자자, 투자기업 또는 지자체(지역균형뉴딜)가 운용사의 투자계획 등을 접하고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5월 ● 위탁운용사 제안서 제출 (자펀드 운용사)
- 6월 ● 위탁운용사 서류심사, 제안심사 후 선정 (산은·성장금융)
- ~12월 ● 4조 원 규모 자펀드 순차 결성·투자개시 (자펀드 운용사)
- 12월 ● '22년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 확정 (국회)



2 뉴딜 인프라펀드



◆ 심의위 개최

3.31일 부터
심의 신청 접수 실시



접수 상황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1차 심의위 개최 추진 (4월 중)

◆ 세법 개정

현재는 '22년말 과세특례 일몰 예정이나, 가입 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 추진

* '22년 입법, '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

Q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판 뉴딜 분야는 국민 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간이 길고 위험이 커서 민간의 선도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정부의 위험부담과 정책자금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적절한 수준까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장기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정책성 펀드로 이번 정부가 끝나면 뉴딜펀드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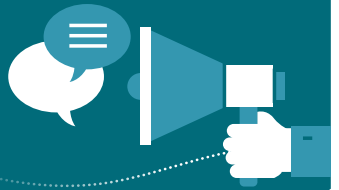
과거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정책성 펀드와 달리,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디지털과 그린 산업으로서, 추격형 경제 구조에서 선도형 경제 구조로 바뀌어 나가는데 필요한 투자 분야입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정부가 바뀔다고 해도 쉽게 변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되어도 뉴딜 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Q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뉴딜 분야의 효율적 금융 지원을 위해 '20년말 기준 40개 분야, 총 200개의 품목(디지털 뉴딜 115개 품목, 그린 뉴딜 85개 품목)으로 뉴딜투자 공동기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부처·정책금융기관·산업계·금융 투자업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판 뉴딜 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뉴딜 품목을 선정한 것으로 품목에 대한 변경 등은 시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newgi.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얼마나 만들어지나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나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20조 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재원 7조 원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자금 13조 원과 함께 펀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1년은 그 첫해로 4조 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 계획이며, 개인 투자자분들도 3월 말부터 판매되는 1,4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참여 뉴딜펀드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나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실행합니다. 투자 상품의 특성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부담을 통해 국민들의 투자 안정성을 보강해 줍니다. 이때 정부자금은 후순위 출자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므로, 이에 상응하여 펀드가 기준 수익률 이상 달성할 경우 기준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에 대해 분배 시, 보다 높은 수익을 분배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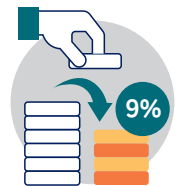
Q 최근의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운용사, 운용인력 등에 대한 과거 실적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운용사를 선정합니다. 투자 시에는 자금집행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으로 운용사의 자의적인 자금 운용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또한, 운용보고서, 펀드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매년 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부여하여, 최근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게 국민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Q 뉴딜 인프라펀드에 개인이 투자하면 어떤 세제지원 혜택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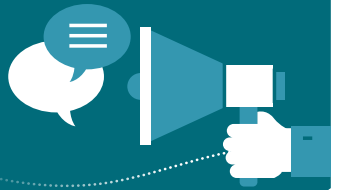
정책형 뉴딜펀드 이외에도 개인은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제지원은 투자금액 2억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9%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서민·중산층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적용 세율이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 세율인 14%가 아닌 9%로 낮아지는 만큼 세율 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뉴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 초에 정책형 뉴딜펀드의 여러 정보와 통계를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과 선정된 운용사, 그리고 펀드에 참여하고 싶은 민간투자자 간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 방법은?

펀드를 설립·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심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기획재정부(혁신성장지원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www.knewdeal.go.kr)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접수메일: newdealinfra@korea.kr, 연락처: 044-215-4582



Q '뉴딜 인프라'의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는?

세제지원 대상 '뉴딜 인프라'는 개념적으로 '뉴딜'과 '인프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 시설을 의미합니다. 우선 '뉴딜'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인프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그린스마트스쿨, 데이터센터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뉴딜 인프라' 여부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디지털 뉴딜

테마	분야	품목(예시)
 첨단제조·자동화	로봇	지능형 서비스로봇
	항공·우주	드론(무인기), 위성, 발사체
 화학·신소재	바이오소재	의료용 화학재료(생체적용)
 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원격검침 인프라
 환경·지속가능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정밀농업, 수직농법, 스마트 드론 파밍, 스마트양식
	친환경소비재	고부가가치식품
	차세대 진단	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유전자 진단예측
	첨단영상진단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맞춤형의료	스마트알약, 첨단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첨단외과수술	영상가이드수술, 수술용레이저, 수술용로봇, 홀로그램 원격수술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AI칩
	감성형 인터페이스	인간교감 소셜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웨어러블 전자기기, 무선충전, 고속충전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데이터저장, 슈퍼컴퓨팅

테마	분야	품목(예시)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4G/5G 통신,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밀리미터파(초고주파), 방송통신인프라, RFID/USN, 선박통신시스템, 스마트시티, 6G 통신,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Massive MIMO)
	능동형컴퓨팅	인공지능, 상황인지컴퓨팅, 에지컴퓨팅, 동작인식 및 분석, 디지털트윈,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스마트물류시스템
	실감형콘텐츠	확장현실, 가상훈련시스템,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
	가용성강화	블록체인, XaaS, 사이버보안, DRM/CAS, 소프트웨어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 데이터분석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몰데이터,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예측 및 처방적 분석
	소프트웨어	게임엔진
 센서·측정	감각센서	3차원이미지센서, 3차원터치기술, 후각센서, 고해상도이미지센서, 햅틱기술, 바이오센서, 전자피부
	객체탐지	생체인식, 화생방 핵폭발탐지, 관성센서기술, 센서융합, 테라헤르츠센싱, 스마트센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동적 비전센서, 초소형인바디센서
	광대역측정	라이더(LIDAR), 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지식 서비스	게임	온라인게임, 가상현실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콘텐츠, 방송 콘텐츠, 케이팝(K-pop), 애니메이션 콘텐츠, 웹툰, 특수효과
	창작·공연·전시	무대기술
	광고	애드테크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제품/시각정보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에듀테크, 전자출판, 모바일서비스, 티커머스, 공유경제 플랫폼, 주문형 맞춤 보안, OTT
	핀테크	송금·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금융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 그린 뉴딜

테마	분야	품목(예시)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공정	3D머신비전, 3D프린팅,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지능형기계, 4D프린팅, 지능형 4D스캐닝
	로봇	미래형 제조로봇, 스웜로보틱스
	차세대동력장치	첨단철도, 전기차/하이브리드, 스텔링엔진, 스마트카,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고효율/친환경 선박, 스마트모빌리티,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화학·신소재	바이오소재	생물유래소재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해양, 농산, 산림 포함), 지열발전,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대형풍력발전시스템, 수열발전, 수소에너지(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친환경발전	연료전지,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에너지하베스팅,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에너지저장	정압식압축공기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저장클라우드, 에너지가스변환, 리튬이온배터리, 양성자전지, 슈퍼커패시터, 냉온열에너지저장, 바이오배터리,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레독스 흐름전지
	에너지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폐열회수, 독립형해수담수화, 지능형공조시스템, 분산에너지시스템,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

테마	분야	품목(예시)
 환경·지속가능	스마트팜	농업용미생물, 생물비료, 곤충사육, 스마트종자 개발·육종
	환경개선	정삼투, 바이오필름수처리, 친환경공조시스템, 기름유출방제, 대기오염관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 토양정화, 원전플랜트 해체,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자원효율관리서비스, 친환경 패키징, 유니소재화 제품
	환경보호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방사성폐기물 처리, 폐자원에너지,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소음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도시광산, 재제조,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건강·진단	친환경소비재	유전자화장품
	차세대치료	개량신약, 혁신신약
 정보통신	실감형콘텐츠	스마트홈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전력반도체소자
	능동형조명	OLED(LED)조명, 스마트조명
 센서·측정	객체탐지	비접촉모니터링

* 산업·기술 간 융복합 트렌드를 감안, 프로젝트 또는 기업 영위 (계획)사업이 상기 품목에 해당될 경우 디지털·그린 뉴딜 구분에 관계없이 투자대상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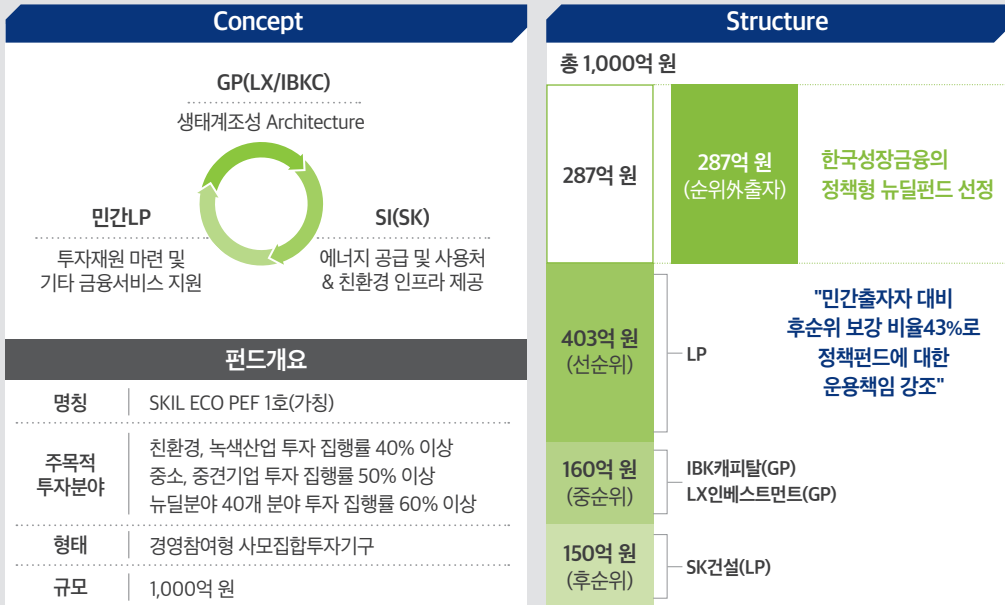
투자 제안형 	1200억 원 이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중소기업은행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엘엑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1200억 원 초과	신한벤처투자
		아주아이비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뉴딜 성장형 	이앤에프 프라이빗에쿼티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국민 참여형 	디에스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	
	오라이언자산운용	
	지브이에이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2개 펀드 제안)	
	파인밸류자산운용	
	포커스자산운용	
인프라 	신한자산운용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	
	케이비자산운용	



◆ 친환경 뉴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뉴딜펀드 투자(LX 인베스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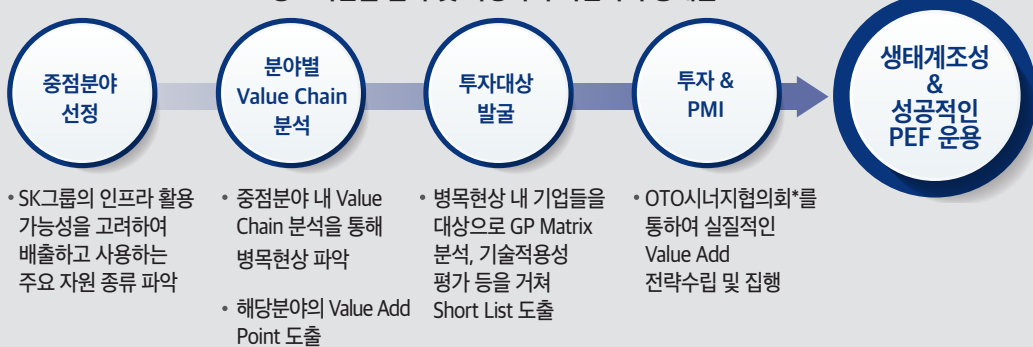
1. 펀드 투자구조

실질적 Value Add가 가능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조합으로 친환경 순환경제 생태계조성 적극 추진



2. 펀드 운용전략

생태계 조성관점에서 Value Chain을 형성할 수 있고, SK의 Captive를 활용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기업가치 증대를 도모



*OTO(One-Team-Operation) 협의체

PEF 이해당사자들이(LX인베스트먼트, IBK캐피탈, SK건설) 정보를 교환하는 협의체, Shortlist된 잠재 Target들의 투자 검토 단계에서, 환경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여도, SK건설 및 그룹 Captive 활용 가능성, 기술경쟁력 등에 대하여 논의

◆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인프라 투자 사례(신한자산운용)

1. 펀드 투자구조

신한자산운용은 2021년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



2. 펀드 투자사례 : 오미산 풍력발전사업

오미산 풍력발전사업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민원보상비 성격으로 지급하며 지역주민은 동 재원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

